

생명의료윤리학(3): 장기이식의 윤리

1. 문제제기 : 장기이식의 분류

최근 MBC의 <醫家兄弟>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미니 시리즈는 형제간의 갈등으로 긴장감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진료 행위를 현실감 있게 다루어 주고 있어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월 17일자 방송에서는 심장이식 수술 장면을 방영하면서, 심장 기증자, 의사 그리고 환자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암거래는 우리들의 상식적인 윤리에도 어긋난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심장이식 수술은 문제가 없는가? 하나의 의료 관행으로 심장, 콩팥 등의 장기이식 수술이 행해지기 때문에 일상인들은 아무런 비판적 반성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시술이 성경적인지를 묻지 않은 채, 자기의 생명 연장을 희구한 나머지 수술에 임하고 있으며, 심지어 장기이식을 통해 생명을 연장한 기독교인들조차도 서슴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한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장기이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기독교적으로 정당화된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정당화되는지 등의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물음에 답하자면 우리는 먼저 장기이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다음, 그것이 제기하는 윤리적 물음들을 천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이식(臟器移植)이란 말 그대로 장기, 즉 신체기관을 이식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이식한다'는 말은 '교환한다'는 말이다. 마치 자동차의 어느 한 부품이 망가져 사용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듯이, 인간의 신체기관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몇몇이 고장이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로 장기이식이다.

모든 교환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는 교환되는 '물건' 이요, 두번째는 그 물건의 공급자요, 마지막은 그 물건의 수요자이다. 장기이식의 경우 물건은 장기요, 공급자는 장기 기증자요, 수요자는 장기 수혜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이식은 일차적으로 교환되는 장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즉, 이식되는 장기에 따라 수혈, 콩팥이식, 심장이식, 간장이식, 췌장이식 등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장기이식의 윤리성 물음을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이식의 본질을 드러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두 요소에 눈을 돌려야 한다. 장기이식의 수혜자는 인간이다. 그러면 이식 받는 장기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사실 이 물음은 복합 질문으로서, 두 가지 물음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누구로부터 얻어지는가, 즉 장기 기증자는 '누구인가'(who)의 물음이요, 다른 하나는 그 '누구'가 전제될 경우 '어떻게'(how) 얻어지는가의 물음이다. 이 두 물음이 바로 장기이식의 윤리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된다. (이 두 물음이 실제로 확연하게 구분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두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구분할 따름이다.)

물론 장기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실행 가능한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조직형태의 차이로 인한 거부반응이 수술 후에 종종 일어나고 있다. 한

국에서 가장 빈번히 행해지고 있으며 또 그 성공률이 가장 높은 콩팥이식 수술의 경우 3년 이상 생존율이 85% 정도라고 한다. 또한 경제적인 비용 부담도 엄청나다. 한 예로서, 1983년 기준으로 미국과 서유럽에서 심장이식 수술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만 달러(한화로, 약 8,000만원) 정도이다. 따라서 장기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이식장기의 보전이나 거부반응 등의 의학상 문제가 제기되며,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의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경제적인 문제는 장기이식의 윤리성 물음과는 본질적인 연관 관계가 없는 이차적인 물음이기 때문에, 본 논의에서는 논의로 하고자 한다.

그러면 첫번째의 '누구'의 물음부터 살펴보자. 이식되는 장기는 누구에게서 얻어지는가? 여기서 '누구'의 외연에 포함되는 자는 크게 4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다 (자가이식, autograft). 피부 이식수술과 같이, 나의 신체 일부를 특정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수술이 가능하다. 두번째의 가장 흔한 것으로 타인을 들 수 있다 (동종이식, homograft). 심장이식이나 콩팥이식 등 대부분의 이식수술은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진다. 세번째는 인간 이외의 포유류이다 (이종이식, heterograft). 콩팥처럼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떼어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심장과 같은 신체 기관은 하나를 떼어내면 곧바로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심장을 대신할 심장을 동물에게서 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번째는 인공장기이다. 인간도 동물도 아닌, 스테인레스 강철이나 실리콘 탄력섬유, 테프론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장기를 우리는 이용할 수 있다 (인공장기, artificial organs). 다리를 절단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리보철(leg prosthesis)이 그 좋은 예이다. 물론 아직까지 세번째와 네번째의 장기이식은 조직 형태의 차이로 인해 소수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현실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나, 앞으로 이런 의술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2. 장기이식의 윤리성 물음

장기이식에 관한 이러한 분류에서 우리는, 장기이식이 정당화될 경우, 어느 범위까지 허용 가능한가의 물음을 일단 제기할 수 있다. 즉, '누구'의 장기이식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수술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허용 가능한지의 물음이 제기된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장기이식에 대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가의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물음은 장기가 어떻게 얻어지는가의 물음과 무관하게 다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어떻게'의 물음이 하자가 없다면, 그만큼 '누구의'의 물음도 도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절에서는 '어떻게'의 물음과 관련하여 장기이식의 윤리적 물음을 제기하고, 다음 절에서 그 물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자がい식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장기이식도 역시 하나의 수술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하에 실시될 것이다. 본인의 동의 외에는 자がい식의 경우 별다른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 내에서의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전체성의 원리(principle of totality)를 받아들일 경우 자がい식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성의 원리란 부분은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원리이다. 다시 말해, 신체 기관의 부분들은 전체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한 개인의 전체적 선을 위해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종이식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이종이식의 경우에는 장기 기증자가 동물이다. 동물은 현재로는 의사 표현권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로부터 장기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토끼 콩팥을 아무런 하자 없이 인간에게 이식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토끼로부터 콩팥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가? 이는 현재 영미 환경보호론자 혹은 동물애호가들이 주장하는 동물의 도덕적 권리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따라서 이종이식의 경우 동물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의 담지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물음이 제기된다. 권리 담지자가 될 수 없다면 이는 인공 장기와 유사하게 다루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 권리 담지자가 된다면 이는 아주 복잡한 윤리적 물음을 낳는다. 의사표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직접 표현할 수 없다면 대리인은 누구인가 등의 물음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번째의 인공장기는 인간에게 이식되는 하나의 의약품에 불과하기에 별다른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즉, 인공장기는 다른 누구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약품이 생산되듯이, '장기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장기 기증자의 동의와 같은 도덕적 물음은 전혀 제기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다만 인공장기의 비용 부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종류의 이식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인공장기 고유의 특별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표면상으로 보면 이종이식이나 인공장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장기이식에는 인간 본성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야기한다. 인간의 장수에의 욕망 탓으로 심장, 콩팥 등의 여러 장기를 반영구적인 인공장기로 대체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아니면 현재보다 수명이 엄청나게 긴 존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인조인간'도 과연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동종이식의 경우에는 장기 기증자가 수혜자와는 다른 인간이다. 그래서 동종이식의 경우 일차적으로 장기를 어떻게 확보하는가의 물음이 발생한다. 우선은 그 기증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락사의 물음에서 '정보에 근거한 자율적인 동의'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듯이, 장기이식의 경우에도 동일한 물음이 발생한다. 여기서는 자율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상인들은 기증자 자신의 자율적인 동의만 얻는다면 이러한 장기이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 배후에는 심오한 형이상학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유권과 처분권의 물음이다. 나의 ‘팔’을 비롯해 나는 나의 신체와 각 신체기관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이 나의 팔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권으로부터 곧바로 처분권이 귀결된다. 예를 들어, 한 자루의 연필이 나의 소유물일 경우, 나는 이 연필을 버릴 수도 있고 부러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처분권이 도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다. 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밥을 버리는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하여 왔는데, 이는 우리 인간에게 밥을 마음대로 버릴 도덕적인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는 소유권으로부터 처분권이 귀결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처분권과 연관하여 동종이식의 경우, 장기의 상업적 거래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의 물음이 제기된다. 현행법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나가 없어도 생명이나 생활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콩팥의 경우, 하나를 매매할 자유를 우리 인간은 지니는가? 하나밖에 없는 심장의 경우에는 더 어려운 물음을 야기한다. 심폐사를 죽음으로 보는 현재의 도덕 관행에 따르면, 엄밀한 의미로는 심장이식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는 곧 자기 몸 전체를 팔 수 있는 자유를 지니는가의 물음으로, “현대판 심청이”가 도덕적으로 미화될 수 있는가의 물음이다. 아니면 살아있는 심장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죽음의 기준을 수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생명 의료 윤리 학계에서 논란거리인 “뇌사와 심폐사” 논쟁이다.

장기이식에 관한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난 윤리적 물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본적인 물음과 기독교적 문제 의식은 다음 절의 논의를 위해 첨가한 것이다)

	근본적인 물음	특수한 물음들	기독교적 문제 의식
동종이식	1. 자아동일성 물음 (self-identity) 2. 심신문제 (mind-body problem)	1.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율적 동의 물음 2. 장기의 상업적 거래의 정당성 물음 3. 뇌사 인정의 물음	1.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처분할 권리를 지니는가? 2. 장기기증은 사랑의 표현인가? 3. 죽음의 기준 물음
이종이식	3. 장기에 관한 분배적 정의 물음	동물의 도덕적 권리 물음	다른 종족간의 이식이 성경적인가?
인공장기		인조인간의 가능성 물음	인공장기는 현대판 바벨탑인가?

3. 장기이식과 성경적 세계관

앞의 표에 나타난 물음들을 여기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장기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물음을 기독교적 문제 의식에 따라 조명해 보면서, 그에 관한 성경적 입장이 어떠한지를 천착해 보고자 한다. 논의 전개 편의를 위해 필자는 논란거리가 적은 문제부터 다루고자 한다.

3.1 장기의 상업적 매매 물음

장기의 상업적 매매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상거래가 이루어지자면 우선은 매매할 대상에 대한 소유권 뿐만 아니라 처분권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미 앞에서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에서 처분권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처분권이 인정되어도 정상적인 상거래가 성립되자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 잡히거나 독과점일 경우에는 그것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기의 경우 수요는 엄청나게 많으나 공급자는 절대 부족 상태이다. 또한 장기의 처분권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갖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통제하기에

도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장기는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기에 그 거래가 인간의 이성애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공급자로서는 생명을 무릅쓰고 일확천금을 꿈꿀 수가 있으며, 수요자 역시 삶의 집착으로 이성적인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장기가 하나의 상품이라면 그 장기의 품질에 대한 보증이나 애프터서비스 등이 뒤따라야 하나, 장기의 경우 이러한 일이 전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의 상업적 매매 허용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클 것이다.

더군다나 성경은 인간에 대해 하나님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결코 상업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신체를 전제로 한 것이기에, 신체 기관의 매매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기 신체기관의 매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물질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의 상업적 매매는 철학적으로 보아 이론적인 문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도 어긋난다고 여겨진다.

3.2 이종이식은 정당화가 가능한가

이종이식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근본적인 취지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혹은 건강의 증진을 위해 동물의 장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생존을 위해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논리로 동물의 콩팥을 인간에게 이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종이식이 과연 성경적 가르침과 부합하는가의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성경에는 장기이식에 대한 직접적인 찬·반 언급이 없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구심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여 창조하셨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창 1:24-25) 창조하셨다는 말은 곧 각각의 동물 종은 그 고유의 법칙

(law)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의학은 이 창조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종이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구약 레위기는 수간(獸姦)을 금지하고 있다(레 18:23). 다시 말해, 성경은 그 종류가 다른 두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종이식은 인간과 그 종이 다른 동물과의 결합이기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3.3 인공장기는 허용 가능한가

실제로 인공장기는 극히 일부분에서 현실화되고 있으며, 아무도 인공다리나 손에 대해 그것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인공장기는 어려운 물음을 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인조인간'의 가능성이다. 이 물음을 이해하자면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 창조 기사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여기서 흙, 생기, 생령 등의 개념이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단순한 육체만의 존재도 영의 존재만도 아니요, 오직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영과 육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그 관계가 무엇인가의 물음을 다루는 것이 바로 심신문제(mind-body problem)이다.

그런데 인공장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사용하신 재료 이외의 제 3의 요소이다. 인간적인 육체가 아닌 이물질인 인공장기가 유입되게 되면, 일단 구성 요소의 측면에서 인간은 달라지게 되며, 나아가 인간의 정신 활동이 신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정신 활동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특히 이식된 장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눈, 심장, 콩팥, 췌장 등을 모두 인공장기로 대체할 경우 우리 인간의 정신 작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이런 일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지만, 먼 미래에 장수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탓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이웃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인공장기로 대체된 '인간'도 그 이전과 동일한 정신 활동을 할 것인가?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의외의 정신적 기능을 지닐까? 어떤 이는 뇌가 대체되지 않는 한 동일한 정신활동을 하며 그래서 동일한 인간이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의술이 발달하여 뇌마저 '인공뇌'로 이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도 성경에 비추어 인간이라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인간에 대한 정의를 바꿈으로서 이러한 존재도 인간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그러한 존재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인공장기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공장기 의술이 유전공학과 결합되면, 완전히 새로운 인간에로의 개조가 가능할 것이다. 겉모습만 인간의 모습을 닮고 그 내부의 신체기관이나 기능은 일상적인 인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 바로 인조인간이다.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창조자의 지위를 탐내는 '현대적 바벨탑'이라 할 수 있지 않는가?

물론 우리는 인공장기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자가 인조 다리를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인공장기의 사용이 앞에서 제기한 어려운 물음들을 발생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공장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삶의 인간적인 집착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 경계선은 각자의 신앙에 맡겨질 따름이다.

3.4 동종이식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 사상으로 인해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장기기증에 대해 부정적이다. 일부 기독교인들조차도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들어, 장기기증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지니지 않듯이, 성전인 몸도 함부로 처분할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자해행위나 자살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일면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성경은 곳곳에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도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레19:18)고 말씀하신다.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고 가르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인 몸에 대한 처분권을 각 개인이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그 몸의 사용을 허용하신다고 보여진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스테반 집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가르치신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몸은 친구를 구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일 때 처분권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기 기증자를 자기 학대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판 심청이'로 칭찬해야 할 것이다.

콩팥과 같이 쌍으로 지닌 신체기관의 하나를 기증할 경우, '만약에 남아 있는 한 쪽의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와 같은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장기이식의 서약이 일반화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는 '나'의 외연이 추상적인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몸의 차원에서 확장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는 본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나'의 외연이 확장될 경우에는, 전체성의 원리가 이러한 장기이식을 정당화시켜 준다. 즉, 사랑이 실현된 사회에서는 전체가 하나이기에, 전체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암묵적으로 읽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동종이식의 경우에도 자아동일성(self-identity) 물음이 제기된다. 즉, 이종이식 및 인공장기 이식과는 달리, 동종이식은 인간 본성에 관한 물음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장기이식된 존재와 그 이전 존재가 동일한 개별체인가라는 자아동일성 물음을 야기한다. 인간은 신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실체가 모종의 상호작용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 A가 수혈을 하고 심장, 콩팥, 췌장, 안구 등의 여러 신체기관을 다른 사람으로 장기로 대체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이식을 받은 A는 그 이전 A와 동일 인물인가?

이 물음에 답하자면 한 인간의 개체성을 확정짓는 것이 무엇인가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영혼이 한 개체성을 결정짓는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면, 일명 'A-영혼'이 A의 개체성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러면 'A-영혼'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심장에 아니면 뇌에? 아니면 그 어느 부위에 존재하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다. 아마 'A-영혼'은 어느 특정 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한 인간의 신체기관, 'A-영혼', 그리고 이 양자의 상호작용이 3자에 의해 A의 본질적 구조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면, 동종이식된 신체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A의 자아동일성 물음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맺는말 : 인간은 하나의 기계인가?

인공장기 이식뿐 아니라 모든 장기이식의 배후에는 인간에 대한 전혀 다른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신체 기관을 하나의 기계 부품으로 여긴다는 입장이다. 이는 다분히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고장이 날 경우 인간의 신체기관도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마치 컴퓨터의 어느 한 부품이 고장나면, 다른 새 제품으로 교환하듯이, 인간도 어느 한 부품이 고장나면 신형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신체기관이 하나의 부품이라면, 인간도 하나의 기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비난에서 벗어나자면 우리는 다음의 물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장기이식이 가능하면서, 기계가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또는 한 개인으로서 자아동일성을 지니는 한계 내에서의 장기이식은 어디까지인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인간의 신체기관 가운데 인간이게끔 만들어 주는 본질적인 기관이 무엇이나의 물음과 연관되어 있다. 영혼인가 아니면 지성의 기능을 지닌 뇌인가? 아니면 어느 특정의 신체기관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 인공장기의 사용 한계가 설정될 것이며, 동종이식의 범위도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아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종이식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우리는 장기기증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등소평이 죽으면서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언론에 회자된 적이 있듯이, 우리도 유교적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이란 측면에서 장기기증운동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신체에 관한 유언(the living will)을 남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처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명하

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체계를 구축하여 기증된 장기를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기증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할 필요성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장기를 기증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없으면, 자유롭게 사체로부터 장기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상업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장기이식의 윤리 물음은 일상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이 물음은 단순히 기독교윤리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신학 일반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중대한 물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까지의 필자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장기이식의 윤리에 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적인 작업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장기이식의 근본적인 물음인 자아동일성 물음이나 심신문제를 온전하게 다루지 못하고 간단하게 언급하였을 따름이다. 또 장기이식과 연관된, 죽음의 기준에 관한 물음 즉 심폐사나 뇌사냐의 물음을 다루지도 못했으며, 기증된 장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와 같은 분배적 정의 물음도 다루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